

일양 가족



Contents

IL-YANG newsletter
2025 Fall vol.327

의약기술 100년 도전...
신뢰, 도전, 창조였습니다.

www.ilyang.co.kr

앞으로도 일양약품은 생명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은 물론 이땅의 모든 질병을
퇴치하는 그날까지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로
21세기의 건강한 미래를 열어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양지점소개

서울병원 4팀
팀 빌딩 프로그램 : 쿠킹클래스

6



일양슈퍼루키

경영기획팀
정현민 사원

12

일양가족 기쁨전하기

서울병원2팀 종병2소 전승환 과장 가족
서울강서약국팀 김호 과장 가족

16



전지적 일양기행

제주 따라비오름

22

트렌드 능력고사

당신의 트렌드 레벨은 과연?

26

일양약품 80주년 슬로건

슬로건 공모전 당선작

28

Winter

Spring

Summer

Fall

일양약품 계간 매거진
일양가족
2025년 가을호

발행일 2025년 10월
발행인 정도연
편집인 홍보팀
발행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194(도곡동)
일양빌딩 02-570-3844

디자인 다룸팩토리
인쇄 두원인쇄공사



일양가족소개

여신관리팀 이희원 사우

30

일양워크숍

생활건강사업본부의 동행

34



일양퀴즈

이랑사랑능력퀴즈

38

임상시험 모집

일양약품, 놀텍 "5번째 적응증 도전!"

40

일양뉴스

- ISO37001 내부심사원 신규
양성-보수교육 실시
- 정정보환, 지하철 광고로 더 가까이

41



협동심 향상 팀 빌딩 프로그램 : 쿠킹클래스

서울병원 4팀

“
2025년
따스한 가을
일양약품의
서울병원 4팀과
함께 했다.
”

서울병원 4팀과 함께하는 가을

2025년 가을, 홍보팀은 서울병원 4팀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 서울병원 4팀은 높은 목표의식을 갖춘 일양약품의 핵심 부서 중 하나로, 업무에서도 서로를 격려하며 단합이 뛰어난 팀이다. 이날 진행된 팀 프로그램은 협동과 소통이 오가는 요리 클래스였다. 재료를 손질하고 조리 과정을 함께 진행하며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팀원 간 협력과 의사소통이 빛을 발했다. 팀장과 팀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도움을 주는 모습은 단순한 체험을 넘어 하나의 공동작업 수행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서울병원 4팀이 보여준 탁월한 팀워크와 단합력! 가을의 선선한 공기 속에서 진행된 즐겁고 활기찬 요리 클래스 현장, 그 열정 가득한 순간을 함께 살펴보자.



좌측부터
김동현 계장, 오인택 차장, 장성훈 과장대리, 최대근 계장, 박현종 과장, 이선근 과장대리, 광혜근 팀장,
김유업 과장, 최진용 과장, 김경주 과장대리, 김용진 계장, 마경재 과장대리, 한원중 과장



다같이 하는 요리는 즐겁네요



팀원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양 덕분에 요리를 해봐요!



아~ 해보세요



치즈 감자채전을 만들었어요

서울병원 4팀 활동 프로그램 : 쿠킹클래스

쿠킹 클래스는 다같이 함께 요리를 완성하며 협동과 소통을 경험할 수 있는 즐거운 활동이다. 재료를 손질하고 조리 과정을 진행하면서 창의력과 팀워크가 자연스럽게 발휘되는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서울병원 4팀은 이번 쿠킹 클래스에 도전했다. 프로그램은 기본적인 조리법과 재료 사용법을 익힌 후 다같이 자신만의 개성을 담아 요리를 완성했다. 처음에는 다소 걱정된 분위기였지만, 곧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협력하고, 재치와 아이디어를 발휘해 자신만의 요리에 몰입하는 모습을 보였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팀원들 간의 협력과 소통이었다. 각자 자신의 생각을 나누고 함께 요리를 완성해 가는 과정에서 동료애가 더욱 깊어졌고, 서로에게 자신이 만든 음식을 맛보여주며 서로의 신뢰도 더욱 높아진 듯 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서울병원 4팀이 평소 얼마나 단단한 팀워크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함께 재료를 손질하고, 함께 완성하며 즐거움을 나누는 이번 쿠킹 클래스! 앞으로도 서울병원 4팀의 끈끈한 단합력과 도전 정신을 기대해 본다.



Q 일양약품 서울병원 4팀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서울병원 4팀은 저를 포함해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은 종합병원을 담당하는 중병4소와 개인병원을 담당하는 의약4소 두 개 소로 나뉘며, 담당 지역은 서울 서대문구, 마포구, 노원구, 성동구, 중랑구를 비롯해 경기 포천, 의정부, 동두천, 구리, 남양주까지 비교적 넓은 범위에 걸쳐 있습니다.

우리 팀은 이 지역 내 대학병원부터 동네 병원까지 다양한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회사 의약품 정보를 전달하고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환자분들이 보다 나은 치료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진을 지원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Q 서울병원4팀만의 자랑. 자부심은 무엇일까요?

우리 팀의 가장 큰 자랑은 평균 근속년수가 10년 이상이라는 점입니다. 신입사원이 계장으로 승진했어도 여전히 막내일 정도로 팀원들의 근속이 길고 함께 성장해왔다는 점이 큰 자부심입니다. 이걸 다시말

해 20~30대 시절부터 함께해 온 팀원들이 이제는 30~40대가 되어, 팀장과 팀원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특별하고 관리자로 자부심을 갖는 점입니다.

또 하나의 전통은 매년 연말 좋은 뷔페에 모여 선물 교환 행사를 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음 한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자만 있는 조직에서 처음 시작할 때는 어색해 했지만 지금은 모두가 즐겁게 참여하고, 받을 사람을 생각하며 준비한 선물로 팀워크를 다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Q 서울병원4팀 업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자질이 무엇이며,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저는 영업사원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은 성실과 정직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의 때 자주 언급하는 말이 '윤칠기삼'인데, 저는 그 '윤'조차 성실한 사람에게 찾아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거래처를 꾸준히 다니다 보면 예상치 못한 기회가 생기곤 하고, 이런 경험을 통해 성실함이 중요한 자질이라 보고 있습니다.

성실한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좋은 결실을 맺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좋은 성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믿고 기다릴 수 있으며, 팀장은 바로 그 시간을 보장해 주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직은 기본 중에 기본이기에 설명이 필요 없는 자질이라 생각합니다.

Q 서울병원4팀을 대표하는 마스코트 같은 팀원 분, 또는 개성이 넘치는 팀원 분이 계신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서울병원 4팀에는 소별로 한 명씩 '마스코트'가 있습니다. 먼저 소개할 사람은 의약4소의 장성훈 대리입니다. 특유의 경상도 사투





리와 에너지 넘치는 목소리,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재치 있는 입담으로 팀 분위기를 단숨에 UP 시키는 존재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곳에는 4팀이 있다고 할 정도로 팀의 중심점이 되고 있는 존재입니다. 다음은 우리 팀 막내!! 종병4소의 최대근 계장입니다. 업무와 운동, 회사 생활은 물론 술자리까지 척척 소화하며, 막내답게 맡은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합니다. 선배들에게는 늘 깎듯하고, 곳은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달려오는 모습은 팀의 마스크급 활력이고 우리 팀 평균 연령을 많이 낮춰주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런 소중한 팀원들과 오래 함께 하고 싶은게 제 바람입니다.

대학로에서 뮤지컬을 관람, 축구경기에서 승리의 짜릿함을 함께 느끼기 등 새로운 장소와 활동을 공유하며 시간이 흐른 뒤에도 팀원들 사이에서 즐겁게 회상할 수 있는 추억을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달 회의실에서는 성공 사례와 노하우를 서로 나누며, 놀 때는 즐겁게 놀고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는 '균형 잡힌 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팀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인데, 이러한 다양한 회식 경험이 자연스럽게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고, 의미 있는 회의 시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다채로운 경험 덕분에 4팀은 자연스럽게 끈끈한 단합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Q 서울병원4팀 팀원들 단합은 주로 어떻게 하시나요?
 서울병원4팀은 단순한 회식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팀워크를 다지고 있습니다. 최소 분기에 한번씩은 모여서 회식을 하고 있는데 우선 회식 장소는 돌아가면서 호스트가 되어서 자기 집 근처 맛집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역의 맛집을 아는 것도 영업사원의 재산이라 생각하고 서로 어디에 사는지 구경하는 것도 회식에서 또 하나의 재미 요소라 생각 되거든요. 보통 회식이라고 하면 술이 빠질 수 없지만, 우리팀은 술만 있는 회식보다는 다양한 문화 생활을 즐기며 건전한 회식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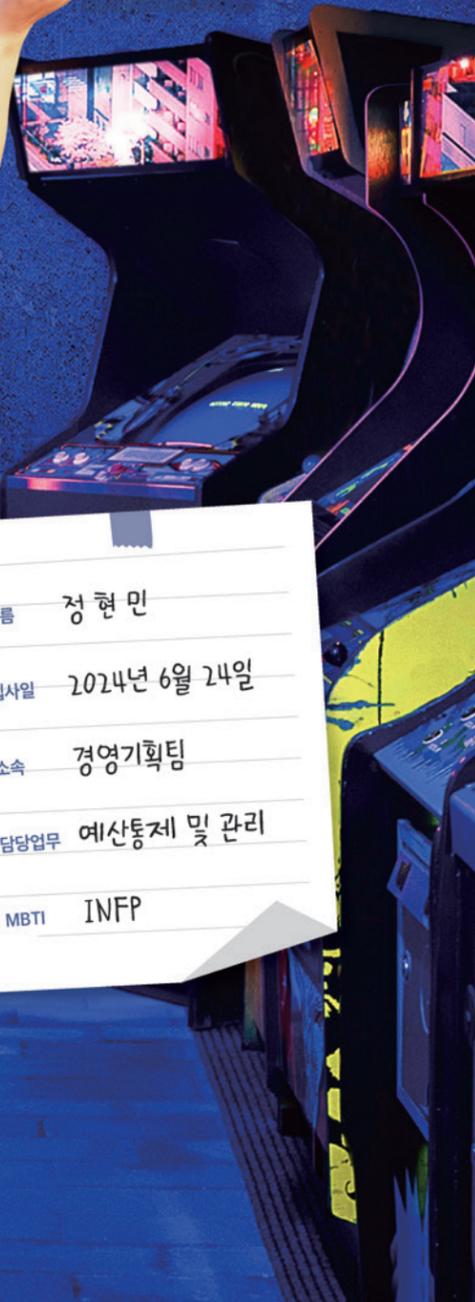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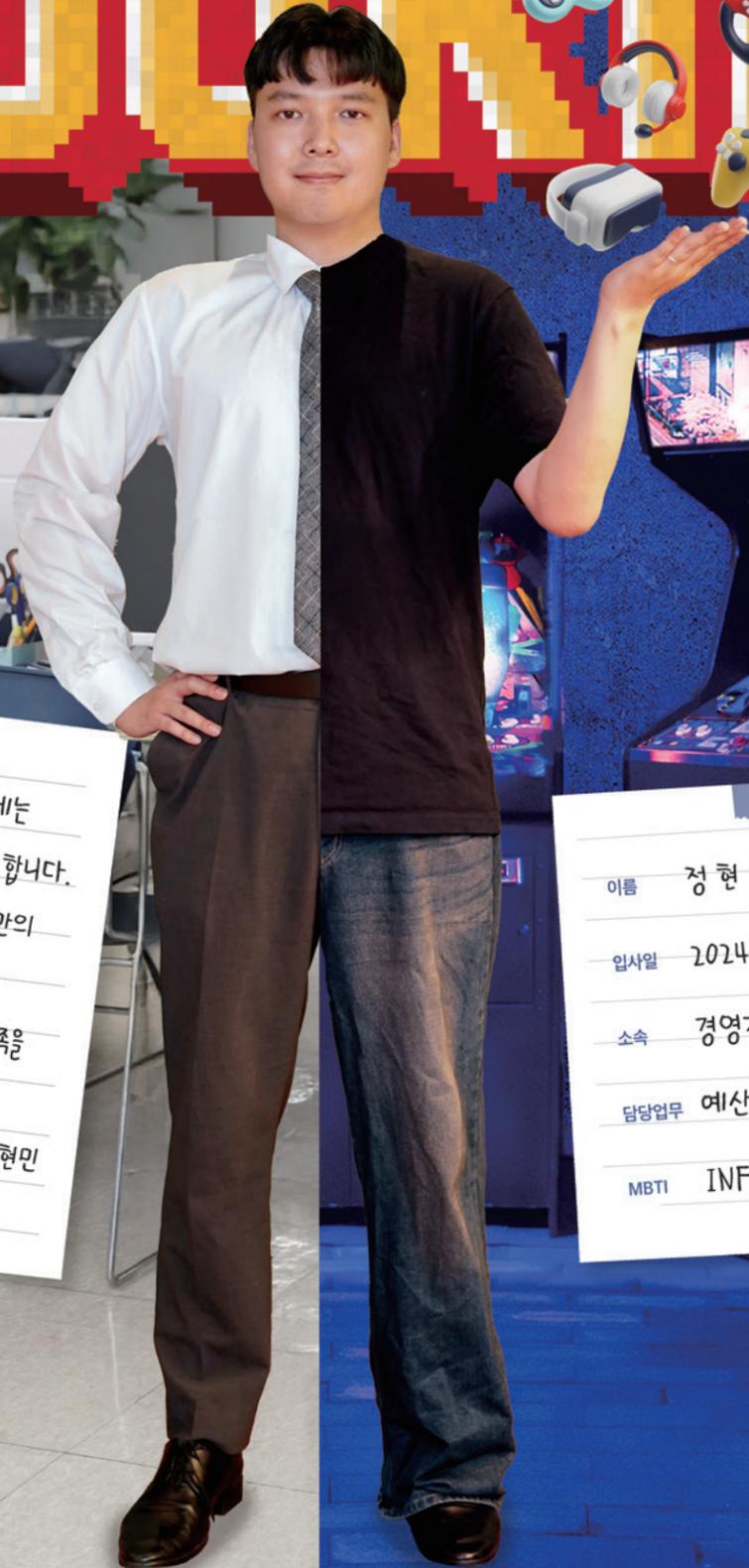


Q 서울병원4팀에서 일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무엇인가요?
 함께했던 모든 순간이 저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업무적으로는 54기 2024년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서울병원 4팀 최초로 리더스클럽 인원을 배출한 해로, 높은 성장을 이룬 한원종 과장이 리더스클럽에 선정되는 쾌거가 있었습니다. 팀장으로서 매우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팀원이 리더스클럽에 선정되어, 직원들이 성과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팀원과 함께한 시간도 기억에 남습니다. 회사 행사에 단체복을 맞춰 참가한 대만 여행, ETC 단합대회, 회사 콘도에서 보낸 야유회 등, 시간이 흘러 지금 그때의 사진을 보며 함께 웃는 소소한 순간들이 팀장으로서 큰 보람과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Q 서울병원4팀에게 일양약품이란?
 서울병원4팀에게 일양약품은 개인의 노력과 열정이 모여 하나의 큰 목표를 실현하고 성취를 함께 나누며 더 큰 도전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팀원 전부 일양약품이 첫 회사라서 짧지 않은 시간동안 몸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놀텍이라는 국산신약을 보유한 일양약품에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일을 하고 있고 우리가 곧 일양이고 일양이 곧 우리라는 생각을 갖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고 팀워크를 통해 더 큰 시너지를 만들어내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새로운 도전을 이어갈 것입니다.



ROOMIES



이번 일양가족지 가을호에는
일양 사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입사부터 포부까지 자신만의
생각과 계획을 듣고 앞으로
멋지게 성장해 갈 일양가족을
함께 응원하길 바랍니다.
이번 호에서는 경영기획팀 정현민
사원을 소개합니다.

이름 정현민
입사일 2024년 6월 24일
소속 경영기획팀
담당업무 예산통제 및 관리
MBTI INFP

회사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며 장기적으로 회사와 함께 발전하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항상 회사생활은 100M 달리기라 아닌 마라톤이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열심히 뛰기는 해야겠지만, 앞만 보고 달리는 것이 아닌 중간중간 급수대에서 물도 마시며 완주의 목적으로 러닝을 하는게 가장 이상적인 회사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된 업무수행을 위해 배워보고 싶은 기술이 있을까요?

평소에 배워보고 싶었던 것들은 많지만,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는 기술은 AI 데이터분석 방향입니다. 우선, 일상적인 업무부터 1년 예산을 관리하는 계획까지 저희 부서의 모든 업무는 데이터가 좌지우지합니다. 또한, 국내·외 상황에 따라 다양한 변수가 창출될 수 있고, 이러한 변수가 회사의 방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여, AI를 통해 양질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하는 능력을 배우고 싶습니다.

경영기획팀 생활에 필요한 업무 역량은?

다양한 역량이 요구된다고 생각하지만, 특히 신중함을 꼽고 싶습니다. 저희 부서가 회사의 예산을 통제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숫자 하나가 잘못되거나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평소의 성격과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업무 활동 내에서는 신중하고 꼼꼼한 스탠스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공유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강점은?

제가 생각하는 저의 강점은 효율성입니다. 자기 시간을 갖는 것을 중요시하고, 친구들과 만남을 좋아하여, 이 시간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런 방향에서 맡은 일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끝내고자 다양한 방법을 구상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료들이 본인을 어떻게 기억하기를 바라시나요?
혹은 듣고싶은말.**

함께 일하면서 힘이 나고 재밌는 동료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저 포함 다들 다양한 업무적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을텐데, 저랑 같이 일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긍정적인 에너지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직장생활과 개인 생활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하나요?

제가 작은 체구가 아닌 부분에서 예상하셨듯이,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는 에너지가 방전되어 먼 거리까지 가서 맛집 탐방을 하지는 못하고, 대신 집에서 요리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제 성격이 정도를 추구하는 성격은 아니라, 레시피는 참고만 하고, 새로운 음식을 창조하며 재밌게 워라벨을 챙기고 있습니다.

좌우명이나 인생철학이 있으신가요?

거창한 것은 없지만, '작은 일에도 만족하자'입니다. 저는 군대에서 초코파이 준다고 받은 세례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무고지만, 불고에서 말하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비록 맨땅에 누워 있어도 편안하고 즐거울 것이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비록 천당에 있을지라도 성에 차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이 감명 깊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힘든 일의 많은 부분이 욕심이 컸었던 경우여서, 작은 일에도 행복하고 만족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인생관입니다.



작은 일에도
만족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취미생활도 충분히
해야 일도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취미나 관심 있는 활동이 있나요?

제 또래들과 같이 저는 게임을 좋아합니다. 직장생활을 하고는 체력이 부족하여 많이 못하는 못하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임도 플레이하며 인상 깊었던 점을 짧게 리포트를 쓰고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갑자기 오늘 하루 연차가 생긴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갑자기 연차가 생긴다면, 드라이브로 근교에 맛집을 가고 싶습니다. 이전 질문에서도 얘기했듯, 옛날에는 맛집탐방을 좋아했어서 갑자기 꿀 같은 연차가 주어지면, 잠시 옛날 취미생활을 즐기며 에너지를 충전하고 싶습니다.

영동발랄 논제! 평생 무료 쇼핑하기 vs 평생 무료 외식하기

의외로 저는 전자를 택하겠습니다. 제가 은근 고급 입맛은 아니라는 평을 많이 받기도 하고, 외식 보다는 집에서 해먹는 것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평생 음식과 관련된 모든 것이 무료였으면 후자였지만, 평생 무료 쇼핑하며 다양한 컬렉션을 수집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서 전자를 택했습니다.

경영기획팀과 일양약품에 한마디.

첫 직장생활인만큼 저희 팀 뿐만 아니라, 일양약품의 많은 사우분들이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많은 배려를 받은 만큼, 모두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원이 되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만든 테라리움, 일양의 특별한 밑포

서울병원2팀 종병2소
전승환 과장 가족



홍보팀에서는 금번 일양 체험으로 테라리움 클래스를 진행했다

투명한 유리 용기 속에 작은 정원을 가꾸는 이번 체험에는 두 가족이 함께 참여해, 일상에서 벗어나 식물과 가까이 호흡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강사의 안내에 따라 아이들은 아담한 테라리움을, 어른들은 조금 더 큰 테라리움을 맡아 각자의 개성을 담아내며 자신만의 풍경을 완성했다. 완성된 유리병 속 작은 정원은 참여자들에게 성취감과 힐링을 선사했으며,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며 웃음과 대화가 오가는 즐거운 시간이 이어졌다. 이번 체험은 단순히 작은정원을 꾸미는 활동을 넘어 가족이 함께 교감하며 소중한 추억을 쌓는 기회가 되었고, 일상 속에서 식물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 일양가족 여러분도 자신만의 작은 정원을 가꾸며 특별한 하루를 경험해 보시길 권해드린다.

서울강서약국팀
김호 과장 가족





미크릭모스가든

주소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1로 147층 703호
 소요시간 1시간 30분~2시간 이내
 영업시간 월-토 11:00~21:00
 전화번호 0507-1444-9918



처음 해보는거라
 멋있게
 만들어보고싶어요!

손끝에서 피어나는, 유리병속 작은 자연

유리병 안에 작은 정원을 만드는 이번 체험에는 두 가족이 함께 참여해, 일상과는 다른 새로운 시간을 만들어갔다.

강사의 설명에 따라 아이들은 작은 병에 흙을 고르고 식물을 심으며 호기심 가득한 눈빛을 보였다. 마찬가지로 어른들은 조금 더 큰 테라리움을 맡아 돌과 이끼, 장식을 배치하며 정성을 담았다. 식물과 재료들이 하나 둘 어우러지자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작품이 완성되었고, 그 안에는 가족의 손길과 웃음이 고스란히 담겼다.

작품을 완성한 뒤 서로의 테라리움을 감상하며 즐거운 이야기가 오갔다.

단순히 식물을 심는 활동을 넘어, 함께 대화하고 협력하며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이 된 것이다.

이번 체험은 아이들에게는 창의력을 발휘하는 즐거운 놀이가, 어른들에게는 바쁜 일상에서 벗어난 힐링의 순간이 되었다. 무엇보다 작은 유리병속 정원을 통해 가족이 함께 만들어낸 특별한 추억이 가장 큰 선물이 되었다.

함께 흙을 손끝으로 느끼고, 서로의 이야기에 웃음을 더하며 작은 정원을 완성한 이번 테라리움 클래스.

참가자들에게 마음까지 채워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엄마!
 너무 신기해요
 제것도 해주세요!

테라리움이란?

테라리움(Terrarium)은 유리, 아크릴, 플라스틱 등 투명한 용기 안에 흙, 자갈, 식물, 이끼 등을 담아 작은 규모의 생태계를 재현한 장치를 말한다. 이는 단순히 식물을 기르는 것을 넘어, 용기 내부에 수분과 공기가 순환하며 미니 자연 환경을 형성하도록 설계되어, 자연의 모습을 축소해 실내에서 감상하고 체험할 수 있는 작은 실내 정원이다.

테라리움은 원래 식물의 생태와 성장 과정을 관찰하기 위한 과학적 목적에서 시작되었지만, 현대에는 인테리어 소품, 취미 활동, 정서적 힐링을 위한 요소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관리가 비교적 쉬워 바쁜 현대인의 생활 공간에서도 자연을 느낄 수 있으며, 개성 있는 디자인과 구성으로 공간의 분위기를 아름답게 꾸미는 역할도 한다.





전승환 과장 인터뷰

가족과 함께한 원데이 클래스! 가족과 함께한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가족과 함께 하는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이런 체험을 아이와 해보는게 처음이었는데 아이도 넘 재미있어했어. 특히 산만한 아이들도 집중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 가족들이 다같이 즐겁게 체험할 수 있었어요.

테라리움 프로그램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인상깊은) 순간은 언제였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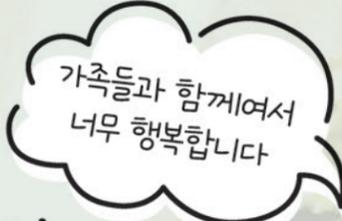
가장 기억에 남는건 이끼를 심을 때였어요. 이끼를 심으니 바위와 모래만 있어 밋밋했던 테라리움이 환해지는 것 같았어요.

테라리움 프로그램 중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다면 무엇이었나요?

식물을 심는 부분이 생각만큼 깊게 잘 들어가지 않아서 조금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즐거운 하루를 같이 보낸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평소에 하지 못했던 새로운 체험을 같이 해보니까 가족들에게도 특별한 시간이 된 것 같아 앞으로 이런 특별한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자.



이번 원데이 클래스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느 정도였나요?

매우 만족합니다.

올 한 해도 어느새 4분기를 향해 가고 있는데, 남은 시간 동안 어떤 목표와 마음가짐으로 마무리하고 싶으신가요?

놀텍플러스라는 신제품이 출시된 상황에서 올해 대학병원에 랜딩을 잘 마무리 해서 내년엔 더 성장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김호 과장 인터뷰

가족과 함께한 원데이 클래스! 가족과 함께한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귀엽고 예쁜 것들을 많이 봐서 와이프 태교에도 도움이 된 듯하여 좋았고, 나중에 둘째도 커서 네 식구 같이 원데이클래스에 참여할 기회가 생기면 좋을 듯합니다.

테라리움 프로그램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인상깊은) 순간은 언제였나요?

선생님이 많은 도움을 주셨지만 완성되고 나서 예쁜 완성품을 봤을 때 뿌듯했습니다.

테라리움 프로그램 중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다면 무엇이었나요?

아무래도 이끼를 심는 세심한 작업이라 예쁘게 만들기가 어려웠습니다.



즐거운 하루를 같이 보낸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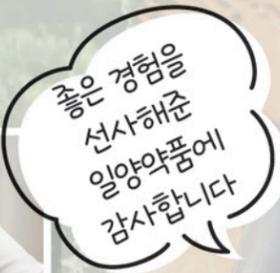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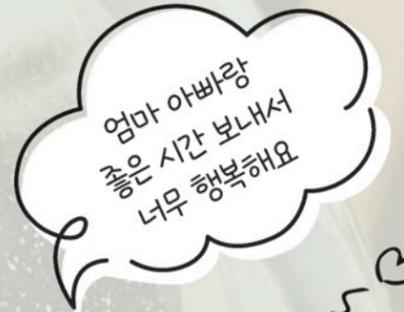
우리 가족 아프지 않고 곧 있으면 태어나는 둘째와 함께 네 식구 행복하고 즐겁게 살았으면^^

이번 원데이 클래스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느 정도였나요?

이번에 처음 참여하였는데 프로그램이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어느새 4분기를 향해 가고 있는데, 남은 시간 동안 어떤 목표와 마음가짐으로 마무리하고 싶으신가요?

올 한해 불경기로 약국영업이 많이 어려운데 남은 기간 목표달성을 하여 올해 마무리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비오름

제주 오름의 여왕

'오름'은 '오르다'에서 파생된 말일까. 산도 아니고, 언덕도 아닌 신비한 존재감 때문에 오르고 또 오르게 된다. 제주도에 360여 개의 오름이 있으니, 하루에 한 곳씩 올라도 일 년 이상 걸린다. 이번 가을엔 역사 풍경이 가장 아름답다는 따라비오름에 올랐다.

주소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산63



표선면 가시리의 대평원에 따라비오름이 불쑥 솟아 있다. 바가지를 얹어놓은 듯한 모습이다. 오름 탐방로 입구에 들어서니 곳곳에 자란 삼나무들이 반겨준다. 계절은 가을 한가운데를 지나는데, 삼나무숲에는 초록이 짙다. 울창한 삼나무숲을 지나 사방이 탁 트인 따라비오름 측면 능선에 올라붙는다.

나무 계단을 한 걸음씩 오를 때마다 하늘이 쑥쑥 가까워진다. 고작 20여 분, 300여 m쯤 올랐을 뿐인데, 경치가 꽤 높은 산에서 보는 것 같다. 이 맛에 오름에 오른다. 걸음을 멈추고 뒤 돌아보니 발아래 은빛 억새군락이 하늘 하늘 춤춘다. 바다 같은 들녘에 불록불록 솟은 오름들이 샷갯을 줄 세워 놓은 듯하다. 따라비오름 북쪽에는 새끼오름, 동쪽에는 모지오름, 장자오름, 설오름, 큰사슴이오름, 작은사슴이오름, 번널오름 등이 둘러싸고 있다. '따라비'의 어원이 여러 오름을 거느린 '땅할아버지(땅하래비)'라는 설이 그럴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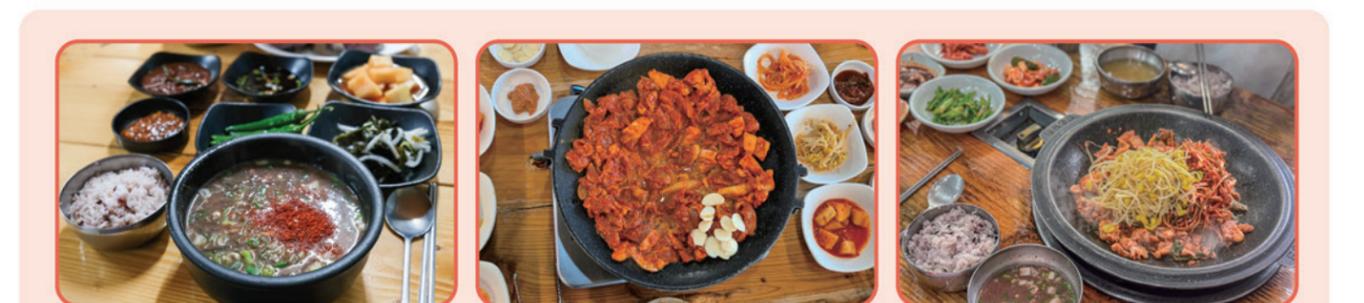
정상이 가까워질수록 대찬 제주 바람을 맞는다. 어른 키를 훌쩍 넘는 억새들이 깃발처럼, 말의 갈기처럼 펄럭인다. 가을바람이 억새를 스칠 때마다 빛방울이 흩날려 눈부시다. 굴부리(분화구) 능선에 올라선 사람들이 거센 바람에 몸을 가누지 못하고 휘청대며 걷는다. 바람에 맞서지 않으면 한 발짝도 전진할 수 없다. 어떤 구간에선 바람이 등을 떠밀어 파도를 타듯 오르락내리락 굴부리 능선길을 넘는다. 굴부리 안쪽도 억새가 점령했다. 억새군락 사이에서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방사탑들이 숨었다 드러났다 자맥질한다. 오름에 방사탑이나 무덤이 흔한 이유는 오름이 제주 사람들에게 삶의 터전이었기 때문이다. 제주 사람들은 바람을 막아주는 오름에 기대어 마을을 만들고, 오름에 자라는 띠와 억새로 초가지붕을 올리고, 나무를 베어 땔감으로 사용했다. 오름 아래 너른 초지에 소와 말을 기르고, 밭농사를 지었다. 척박한 제주 땅에서 오름은 제주 사람들에게 비빌 언덕이었다. '오름에서 태어나 오름으로 돌아간다'라는 제주 속담처럼 제주 사람들은 세상을 뜨고 나서는 오름의 별 좋은 곳에 묻혔다.



따라비오름에서 차로 10분쯤 달려 큰사슴이오름 앞 억새밭에 자리한 풍력발전단지에서 들른다. 억새밭과 풍력발전단지와 큰사슴이오름이 어우러진 풍경이 매우 이국적이다. 큰사슴이오름과 억새밭 사이에는 가시리에서 운영하는 여행자의 쉼터 '유채꽃프라자'가 있다. 2014년 한국농촌건축대전에서 대상을 받은 건물로 주변 경관과의 조화가 뛰어나다. 마을에서 뚝 떨어져 있어 오지에 와 있는 느낌이 든다. 전원풍 카페와 숙소, 식당을 갖추어 숙박하는데 불편함이 없다. 호젓하게 제주의 가을을 만끽하고 싶다면 가시리에 가볼 일이다.



가장 높은 능선에 올라 움푹 팬 굴부리 세 개를 굽어본다. 따라비오름은 특이하게 하나의 원형 굴부리가 말굽처럼 생긴 세 개의 작은 굴부리를 품고 있다. 따라비오름의 빼어난 곡선미가 이 세 개의 굴부리와 여섯 개의 봉우리에서 비롯된다. 그 모습이 아름다워 '오름의 여왕'이라 불린다. 까마득히 보이는 가시리 풍력발전단지와 조랑말테마공원 일대는 옛날 궁중에 진상하는 말을 키웠던 갑마장(최고 등급 말을 키우는 목장)이었다. 삼나무로 울타리를 만들어 말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쌓아놓은 잣성들이 초원에 아름다운 선을 그려 놓았다. 대평원 너머로 이 모든 걸 품고 있는 한라산이 아슬라이 보인다.



가시리에는 제주 향토 음식인 몸국과 돼지두루치기 맛집이 모여 있다. 가시식당(064-787-1035), 나목도식당(064-787-1202), 가스름식당(064-787-1163) 세 곳이 유명하다. 몸국은 돼지고기를 삶은 육수에 모자반(몸)과 메밀가루를 넣어 걸쭉하게 끓인 국이다. 육지에선 생소한 음식이기 때문에 호불호가 강할 수 있으나, 구수한 국을 좋아한다면 도전해 볼만하다. 고사리와 볶아 먹는 돼지두루치기는 어느 식당에 가도 실패하지 않는다.



트렌드 능력고사

당신의 트렌드 레벨은 과연?



1. MZ세대들이 사용하는 자바스크립트의 뜻은? [6점]

- ① 제발좀요 ② 정보좀요
- ③ 장박쥐요 ④ 전번좀요

2. 다음 중 패션 업계와 콜라보레이션 리서츠를 만들지 않은 브랜드는? [6점]

- ① 크리틱-KFC ② FCMM-팔도비빔면
- ③ 휠라-서브웨이 ④ 스파오-엽기떡볶이

3. 최근 MZ세대에게 인기 있었던 챌린지가 아닌 것은? [7점]

- ① 아무노래챌린지 ② 었따빠끄챌린지
- ③ 노인스턴트챌린지 ④ 어디갈래_챌린지

4.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디자인은 () 해주세요” [6점]

- ① 멍멍하게 ② 알잘딱깔센
- ③ 흐드미하게 ④ 톤그로하게

5. Z세대가 자기 위치를 공유하는 어플리케이션은? [6점]

- ① 젠리 ② 틱톡
- ③ 스펀라디오 ④ 스타일쉐어

6. 화제 됐던 굿즈 중에 실제 출시가 되지 않은 것은? [7점]

- ① 칠성사이다 향수 ② 스타벅스 서머레디백
- ③ 할리스 캠핑 의자 ④ 동아오츠카 데자와파운데이션

7. 다음 중 민초단과 가장 관련이 없는 단어는? [6점]

- ① 우유 ② 배스킨라빈스 ③ 아이유 ④ 예코백

8. 다음 중 KBO 프로야구팀과 콜라보 하지 않은 것은? [6점]

- ① LG트윈스 - 마루는 강쥐 ② 두산베어스 - 망곰이
- ③ 롯데자이언츠 - 짱구는 못말려 ④ 한화이글스 - K9 자주포

9. 상반기 SNS에서 유행한 레시피가 아닌 것은? [6점]

- ① 파인애플 피자 ② 수플레 오믈렛
- ③ 채끝살 짜파구리 ④ 달고나 커피

10. 뷰티 브랜드 페리페라의 제품명이 아닌 것은? [7점]

- ① 나가을인데! 나랑밤먹을래?
- ② 봄바람이 부는걸 보니 봄이 왔나봄
- ③ 아버지가방에들어가신다
- ④ 쿨톤이셔서 그런데 DM 확인 부탁드립니다

11. 다음 중 브랜드와 캐릭터 명이 잘못 연결된 것은? [6점]

- ① 빙그레 - 빙그레우스 ② 농심 - 고슴이
- ③ OB베어 - 랄라베어 ④ 진로 - 두꺼비

12. MZ세대 언어 중 칭찬의 의미로 해석하기 어려운 것은? [6점]

- ① 노답이다 ② 혼쫌내자 ③ 부셨다 ④ 미쳤다

13. 방구석에서 즐기는 방탄소년단 콘서트의 줄임말은? [6점]

- ① 방즐방 ② 방서트
- ③ 방탄콘 ④ 방방콘

14. 최근 햄버거 콜라보를 진행하지 않은 흑백 요리사 셰프는? [6점]

- ① 에드워드 리 ② 나폴리 맛피아
- ③ 김풍 ④ 오준탁

15. 마케터가 주로 사용하지 않는 프로그램은? [6점]

- ① 피그마(Figma) ② 메타(Meta)
- ③ 엑셀(Excel) ④ 엑스코드(XCode)

16. 느낌 종이의 줄임말 [7점]

- ① 느종 ② 김종
- ③ 느다 ④ 김다



Lv.1 속세에 얽매이지 않는 자연인 (1~10점)

바깥 세상의 화려함보다 내면의 고요함에 더 집중하는 당신. 트렌드에 얽매이지 않는 당신은 평화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렌드 공부해보는 건 어떠세요?

Lv.2 자발적 고인 물 (11~20점)

관심 분야만 파는 소나무 취향의 당신. 일관성 있고 쫄대 있어서 송진 냄새가 날 정도입니다. 자발적으로 거부하지 말고, 요즘 유행을 조금 더 경험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Lv.3 조기은퇴한 힙스터 (21~30점)

인생 N회차 처럼 관조적인 태도의 당신. 리즈 시절엔 힙스터였지만 지금은 옛날처럼 활동하기에 약간 지쳐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방심한 사이에 당신은 점차 트렌드에 멀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Lv.4 눈팅 전문 트렌드 미어캣 (31~40점)

세상 일에 눈치가 빠른 당신. 실제로 쓰기는 겁나는 타입이라고 할까요? 하지만 요령이 좋은 편이라 트렌드를 잘 몰라도 티가 안 나요. 무엇보다 미어캣들의 특징은 트렌드를 되게 알고 싶다가보다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알려고 한다는 느낌적인 느낌...다들 아시잖아요?

Lv.5 트렌드계의 열정 만수루 (41~50점)

월성부른 떡잎이자 대기만성형 힙스터인 당신. 정보 수집 능력이 다람쥐 도토리 모으는 급으로 뛰어납니다. 트렌드까지 '공부'하는 성향이 강하며, 궁금증이 풀려야 비로소 심신에 안정이 찾아오는 타입입니다.

Lv.6 단독방 트렌드세터 (51~60점)

트렌드 능력고사 결과 당신은 단독방 트렌드세터에 당첨되었습니다. 트렌드세터는 좋은 걸 혼자 알기 아까워하는 사람입니다. 흥인인간 정신으로 인증과 공유를 즐기는 당신, 이 테스트도 공유해주실 거죠?

Lv.7 트렌드 베타 테스터 (61~70점)

당신의 트렌드 능력고사 결과는 '트렌드 베타 테스터'입니다. 트렌드 연박식을 즐기는 타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특유의 호기심과 실행력을 잃지 않는다면, 여든까지도 트렌디할 수 있을 거예요.

Lv.8 힙 플레이스 지배자 (71~80점)

'트머들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당신은 '트렌드'가 자연스럽게 '스머드는' 스폰지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트렌드 리트머스지 같은 사람이랄까. 앞으로 모임 장소나 맛집은 당신이 정하시면 됩니다. 누가 감히 당신의 추천에 반대를 하겠어요?

Lv.9 모르는 게 없는 트렌드 붓짐러 (81~90점)

새로운 트렌드가 나오면 누구보다 빠르게 섭렵하는 트렌드 장학생이라 말해도 되겠네요. 당신 정도면 주변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요즘 유행'을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모은 꿀팁과 정보를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당신을 '트렌드 붓짐러'로 인정합니다.

Lv.10 걸어 다니는 인간 힙 (91~100점)

"앗, 또 앞서 나가버렸지 뭐야?" 당신은 딱히 공부하지 않아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는 타고난 트렌드 천재입니다. "넌 그런 걸 어떻게 알고 해?"라는 질문을 자주 받지만, 본인은 그저 자신을 '그럴싸'라고 생각할 확률이 높습니다.



80년 신뢰, 100년을 여는 혁신



1등 최우수상

**80년 신뢰,
100년을 여는 혁신**

소속 서울병원3팀 중병 3소
이름 유정현
직급 과장대리

'80년 신뢰, 100년을 여는 혁신'이라는 슬로건은 일양약품이 지난 80년간 국민과 함께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100년 또한 혁신을 통해 더 큰 미래를 열어갈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신뢰는 단순한 시간의 축적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지켜온 소중한 약속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공모전을 준비하며 일양약품의 역사를 다시금 돌아볼 수 있었고, 그 과정이 제게도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제안한 문구가 선택되어 영광이며, 앞으로도 일양약품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로서 더욱 사랑받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80주년 슬로건 공모전 당선작

2026년 일양약품 창립 80주년을 맞아 슬로건 공모전을 진행했다. 공모는 7월 14일(월)부터 8월 22일(금)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었으며, 1인당 최대 3점까지 출품이 가능했다. 그 결과 총 97명이 참여해 247개의 슬로건이 접수되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임직원들은 창립 8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일양약품이 걸어온 발자취와 앞으로 나아갈 미래에 대한 다양한 메시지를 슬로건에 담아냈다. 우수한 창의성과 진정성이 깃든 슬로건은 심사를 거쳐 수상작으로 선정되었으며, 앞으로 사내의 홍보물 등에 활용되어 일양약품의 비전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2등 우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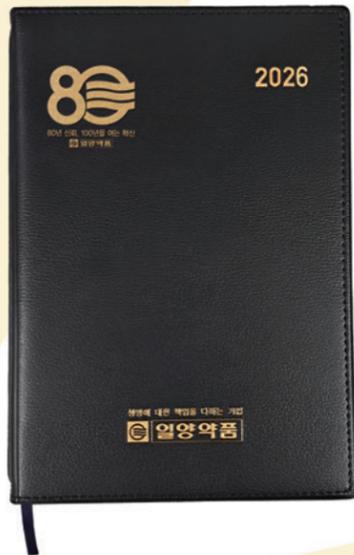
**80년을 지켜온 믿음,
내일의 건강을 만드는 일양약품**

소속 임상1팀
이름 신지윤
직급 책임

일양약품의 80주년을 맞이하여 뜻 깊은 행사에 참여하고, 우수상이라는 영예로운 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80년간 국민의 건강을 위해 쌓아온 신뢰와 헌신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기업의 비전을 담고자 하였습니다. '지켜온 믿음'은 고객과 사회가 일양약품에 보내온 오랜 신뢰를 의미하며, '내일의 건강'은 앞으로의 혁신과 책임을 상징합니다. 슬로건 공모를 통해 일양약품의 역사와 철학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었고, 매우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일양약품의 일원으로 앞으로도 일양약품이 국민 건강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로서 더욱 빛나길 응원합니다.

슬로건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 감사드립니다

- 8팔한 건강을,
0원칙 책임질
일양약품.
해외사업팀 서정호 대리
- 80년의 신뢰,
끝없는 도전,
새로운 창조
품질관리팀 김용덕 사원
- 인간존중 80년,
미래를 향한
비상
구매팀 신상호 과장
- 신뢰의 80년,
혁신의 내일
ETC PM3팀 김동현 사원
- Rise above,
Go beyond
임상1팀 최지훈 책임
- 80년의 여정,
의학을 넘고
신뢰를 잇다
구매팀 신강용 과장
- 오랜 신뢰로,
건강한 미래를
비서실 정하연 사원
- 80년의 믿음,
백년을 향한 동행
대구병원팀 이현창 과장대리
- 일양약품,
80년 신뢰 위에
혁신을!
임상1팀 오상빈 선임
- For quality.
For life. For all.
- Ilyang leads
백신QA팀 이아라 사원
- 80년의 신뢰,
100년의 약속
생활건강사업팀 이석현 대리
- 도전과 창조의 80년,
신뢰로 여는
글로벌 100년
품질관리팀 오승용 과장
- 80년의 책임,
생명을 향한 약속.
생산지원팀 장지연 차장
- 생명을 품고,
미래를 여는
일양약품
품질보증팀 김민섭 과장대리
- 일양과 함께한
80년, 인류의
미래를 향한 100년
제주병원팀 안남규 차장
- 연구로 빛은 한 알,
세상에 건네는
신뢰
총무팀 박준혁 사원
- 80년의 믿음,
100년의
미래를 여는 힘
SEM 정지수 사원
- 전통의 신뢰 위에,
미래의 혁신을
세우다
생활건강사업팀 이다은 사원
- 기술과 믿음으로
빛어낸 80년
건강한 미래를
열어갑니다
생산지원팀 최재원 사원
- 80년의 신뢰,
100년의 건강을
향해
백신QA팀 박재우 사원
- 좋은 길을 넘어,
위대한 길로
OTC PM 오병진 계장
- 혁신으로 이어온
80년, 내일의
건강을 약속합니다
백신 SEM 신재원 사원
- 함께한 80년,
함께 만드는
건강한 미래
개발팀 이수미 사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상

영화같은 일양생활의 주인공 이희원 사원을 소개합니다.
5년간의 영화관 아르바이트, 개인 산문집 출간까지
자신만의 이야기로 삶을 채우는 여신관리팀 이희원 사우

일양약품 이희원 사우는 조금 특별한 취미를 가지고 있다.
단순히 영화를 '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삶을 바라보는 창'으로 삼아온 그.
5년간 영화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스크린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마주했던 시간은,
그의 삶 자체가 한 편의 영화처럼 느껴지게 했다.
또한 산문집을 출간하는 특별한 경험까지 지닌 그는 일상 속 감정과 이야기를 섬세하게 기록해왔다.
지금부터, 영화 같은 그의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자.

여신관리팀
이희원 사우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실 여신관리팀에서 근무 중인 이희원입니다. 회사에서는 주로 영업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실채권을 사전에 차단하고 만일 부실채권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송 및 보전 조치 등으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관에서 5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대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 시작했어요. 영화 보는 걸 워낙 좋아해서 "어차피 볼 거면 돈도 벌자"라는 단순한 마음이었죠.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 단순히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상영 계획표 작성, 상영 준비, 필름 체크 등 '보여지는 과정'을 가까이서 본다는 게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알바하면서 기억에 남는 순간이나 에피소드가 있다면요?

정말 바쁜 날에는 출근해서 하루 종일 팝콘만 튀기다 퇴근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럴 때면 온몸에 달콤한 팝콘 냄새가 배어서 퇴근을 하는데, 집으로 가는 버스에서 괜한 민망함과 뿌듯함이 공존했던 기억이 있어요. 실제로 여름에는 벌레가 좀 더 많이 꼬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웃음) 그래도 매월 10편 이상의 영화를 볼 수 있다 보니 굶직한 영화뿐만 아니라 작은 독립영화에도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어느덧 5년의 기간 동안 300편 이상의 영화를 영화관에 직접 가서 본 것 같아요.

영화 감상이 취미라고 하셨는데, 가장 인상 깊게 본 영화는 무엇인가요?

팀 버튼 감독의 영화 <빅 피쉬(Big Fish)>입니다. 주인공의 허풍쟁이 아버지는 사람들에게 항상 과장된 이야기들만을 들려줍니다. 황수선화를 좋아하는 여인을 위해 5개 주에 전화를 넣어 수만 송이의 꽃밭을 선물했다던가 결혼반지를 물고기 큰 물고기와 결투를 벌여 반지를 되찾아 아들이 태어났다는 등의 이야기였죠. 영화는 그런 아버지의 표현 방식에 불만을 가졌던 아들이 점차 이해를 하게 되는 내용인데 엔딩 크레딧이 모두 올라갈 때까지 한동안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영화 속 장면 하나하나가 마치 클러렴 다가왔고, 저도 그런 감정을 언어로 표현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 했던 작품이기도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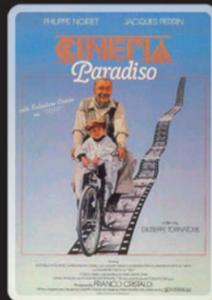


CINEMA

추천 영화 TOP 5



★ 빅피쉬 ★
우리 삶에 판타지가 필요한 이유



★ 시네마천국 ★
과거를 추억하는 모두에게



★ 컨택트 ★
결말을 알고도 살아간다는 것



★ 천공의 성 라퓨타 ★
구름 낀 하늘을 한동안 올려다본 적이 있다



★ 꽃다발 같은 사랑을 했다 ★
여자와 남자의 각자 다른 꽃다발의 사랑 이야기



산문집까지 출판하셨다고 들었어요. 책에 담긴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맞아요. 사실 거창한 의미의 출판까지는 아니고 일상에서 느낀 감정들, 여행에서 직접 경험하거나, 영화를 통한 간접적인 경험들을 한곳에 모아 산문집의 형태로 엮어 몇 권 간직하고 있는 정도이긴 해요. 누군가에게는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그때의 기록이 지금의 저를 만든 조각들이라 생각해서 용기를 내어 책으로 남기게 됐습니다.

영화와 글쓰기 모두 '이야기'와 관련된 취미인데, 사우님에게 '이야기'는 어떤 의미인가요?

제게 있어 이야기란 표현의 방법이자 수단이에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변함없는 사실이겠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기에 현실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현실의 틀을 넘어서서 낭만의 이야기들을 빌려 사랑에 대한 진실을 말할 수가 있겠죠. 결국 리얼리티는 곧 판타지이며, 중요한 것은 진위가 아닌 '진'이라는 것입니다.

일과 취미, 어떻게 균형을 맞추고 계신가요?

사실 쉽지 않지만, 출퇴근길에 영화 리뷰를 짧게 메모하거나, 주말에 꼭 한 편은 보고 글로 남기는 식으로 나름의 루틴을 정해놓고 있어요. 정해진 시간 안에 몰입할 수 있는 방식이 제일 좋더라고요.

앞으로의 목표나 도전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

올해 이루고 싶은 목표는 '2025년 서울시 지하철 작품 공모전'에 창작 시가 선정되는 것이에요.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에 적혀있는 제 글을 보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같은 회사 동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영화를 보고 나서 간략하게 평점과 리뷰를 남기는 습관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요? 훗날 그 리뷰를 보게 되면 당시의 감정, 영화관에 간 그날의 기억들이 찾아와서 기분 좋은 향수를 불러일으켜 줄 거예요. 그만큼 글에는 강한 힘이 있거든요! 각자의 방식으로 '자기만의 이야기'를 간직하며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재미있게 보았던 영화가 있으시면 꼭 추천해 주세요!



꽃말

- 이희원

그날의 기억은 어떤 소리였던가요?
봄날 나비의 일렁거림이었을까요
흔들리는 초록 녹음이었을까요
가을날 홀로 밝은 낙엽이었을까요
차가운 겨울 조용히 내린 눈이었을까요
"젊은 날의 슬픔"
"내 인생의 햇살"
엇그제 피었던 냇은 그늘 아래
무심코 지나친 그들에게도
각자의 의미가 있다고 해요
나는 그대에게 어떠한 꽃말이었을까요?



同行·同幸

같이 행동하고 함께 나누는 행복

생활건강사업본부의 동행 위크숍 현장!

햇살이 부서지는 바다, 탁 트인 갯벌, 그리고 웃음소리가 함께하는 하루.
생활건강사업본부가 지난 6월 20일, 바다의 낭만과 팀워크를 한껏 즐기는 위크숍을 다녀왔다.
이번 위크숍은 상반기를 점검하며 앞으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의미 있는 자리이자,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응원하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 기획되었다.



생활건강사업본부는 건강기능식품부터 생활 속 건강 솔루션까지, 고객의 일상을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드는 다양한 제품을 기획·개발·영업을 하고 있다. 시장 트렌드 분석, 제품 기획, 마케팅 전략 수립, 현장 영업, 사후관리 등 전 과정을 아우르며 변화하는 소비자 니즈에 발맞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팀의 핵심 역할이다.

또한 '건강한 삶'이라는 목표를 고객의 생활 속에서 구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다양한 외부 협업을 통해 역량을 높이고 있다. 이번 위크숍은 단순한 휴식의 장을 넘어, 팀원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생활건강사업본부는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더 큰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며, 건강하고 활기찬 라이프스타일을 만들어가는 여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 게임으로 선물도 받고~

이번 위크숍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무엇인가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식사 후 진행된 '생건을 맞춰봐' 컨텐츠였다. 전무님, 팀장님, 차장님, 과장님의 선호도와 가치관 등을 알아볼 수 있는 퀴즈였다. 문제에 대한 보기를 주고 전무님이 복권 1등에 당첨된다면 무엇부터 할지, 팀장님이 아이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순서대로 원할지, 차장님이 좋아하는 소주 브랜드 순서, 과장님이 와이프의 화를 풀어주기 위한 화해 플랜 순서를 맞추는 퀴즈였다. 특히 전무님께서 부하직원들에 대한 퀴즈를 모두 다 맞춰서 팀원들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있다는 사실에 다시한번 감탄을 금치 못했다. 평소에는 알기 어려웠던 서로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어 매우 유익했고, 예상치 못한 답변과 결과에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단순한 게임을 넘어, 서로에 대한 이해와 팀워크를 더욱 깊게 만들어 준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 갯벌에서 온몸을 불사르고

이번 위크숍을 통해 새로운 매력을 발견한 팀원 있었나요?

평소 김성훈 차장은 신제품이나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걸 제일 먼저 사용해보는 것으로 팀 내의 얼리어답터인데, 이번에는 신형 드론을 가져와서 마치 예능 촬영처럼 위크숍 현장을 촬영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선영광 과장은 전날 저녁 술자리에서 어린 친구들에게 지지 않겠다고 과음을 하고 다음날 갯벌에서 굉장히 힘들어했다는 후문이 있다. 밤에 진행한 노래방 퍼펙트스코어에서 김현태 계장이 김건모 노래로 100점을 맞아서 전무님께 선물로 커피 상품권을 타갔다. 온라인 업무를 함께하는 홍우상 계장과 권유리 사원의 듀엣곡 '묘해 너와'도 인상적이었다.



▲ 너는 나의 운명 ♥ 포토쿠션 당첨!

팀워크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 활동이 있었나요?

팀별 미션 게임인 '생본 요리대회' 활동이 특히 큰 도움이 되었다. 워크숍 전 미리 팀별로 주제에 맞는 요리를 기획하고, 회의를 통해 역할을 분담하며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협력하는 법을 다시 한번 체감할 수 있었다.

저녁 식사 후 30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2개의 요리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강점을 살려 자연스럽게 협업이 이루어졌고, 결과물에 대한 성취감도 함께 나눌 수 있었다. 전무님, 팀장님, 차장님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맛, 데코레이션, 팀워크, 주제 이해도 등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심사해 주셔서 긴장감과 재미가 동시에 더해졌다. 이 활동을 통해 단순한 요리 경쟁을 넘어, 목표 달성을 위해 서로 돕고 조율하는 과정이 곧 팀워크의 핵심임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



▲ 갯벌 닭싸움 한판! 다나와! 여성파워!

▲ 나도 흑백요리사. 팀별 대항전



▲ 일양약품 하트 뽕뽕♥~! 생본본부 사랑해♥

이번 워크샵에서 팀원들이 가장 열정적이었던 활동은 무엇인가?

팀 게임으로 갯벌에서 진행한 신발 멀리던지기, 갯벌 생물잡기 대결, 이어달리기이다. 여자 팀원들이 팀장이 되어 팀원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선택을 받기 위해 춤을 추는 직원도 있었다.

특히 갯벌생물잡기 대결에서 게를 처음 잡아보는 팀원들도 많아서 유튜브로 사전에 공부해 전략을 세우기도 하고, 점수로 카운팅 되는 '게'를 잡기 위해서 모든 갯벌을 헤집어놓는 모습을 보면서 팀원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다.



▲ 마감 후 회식, 다음달도 화이팅

워크숍에서 느낀 우리 팀만의 장점이나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팀은 목표를 향해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팀의 슬로건인 "주전자"—주인의식을 가지고, 전문성을 높이며, 성과창출에 자신감을 갖고 도전하자—가 실제 생활 속에서 잘 실천되고 있다는 것을 이번 워크숍을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본부의 구체적인 목표인 "1·2·3"(매달 신규처 1개 발굴, 2품목 런칭, 1인 3품목 개발) 역시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 팀의 단합력과 빠른 실행력이 있기에 실현 가능한 약속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결국 우리 팀의 가장 큰 강점은 명확한 목표와 '주전자' 정신을 기반으로, 짧은 시간 안에도 눈에 띄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경험이 업무에 어떤 영향을 줄 것 같나요?

이번 경험은 단순한 워크숍을 넘어, 서로의 성격과 강점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다. 그만큼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한 걸음 더 빠르고, 한층 더 자연스럽게 호흡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무엇보다 회의실의 무거운 공기가 아닌, 자연 속에서 나는 웃음과 대화는 마음을 열게 했고 큰 울림을 주었다. 이 따뜻한 에너지가 앞으로의 업무에도 고스란히 스며들어, 서로에게 힘이 되고 팀 전체를 더 밝고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 믿는다.

워크숍 이후 팀에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나요?

평소 우리 팀은 전통처럼 본부 전원이 매달 마감회식을 통해 그날의 잘한 점과 아쉬운 점을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져왔는데, 이번에는 회장님께서 하사하신 귀한 고급술을 나누어 마시며 워크숍에서의 추억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워크숍을 회상하며 다가오는 겨울에는 눈 내리는 설산을 다 함께 오르자고 약속하기도 했다.



▲ 마지막 1인, 골든벨을 향해~

“바다처럼 넓고 깊어진 이해, 그리고 파도처럼 거세게 몰아칠 팀의 에너지. 생활건강사업본부는 이번 강화도 워크숍을 통해 더욱 끈끈한 팀워크와 새로운 영감을 얻었다. 앞으로도 서로의 강점을 살리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건강한 삶을 선사하는 전문가로서 나아가길 것이다. 다음 여정에서 어떤 파도를 함께 넘어설지, 그 발걸음이 더욱 기대된다.”

QUIZ TIME

이랑사랑능력퀴즈 내가 부서인원 모두에게 스타벅스 커피를 쏜다

이랑사랑능력퀴즈는 팀원 중 한 사람이 문제를 모두 맞춰서 가장 빨리 정답을 보내주시면 그 팀원이 속한 팀 모두에게 정답자의 이름으로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드리는 방식입니다. (단, 최대 10장[1만원권]까지 가능합니다.)

이랑사랑능력퀴즈 문제풀이를 통해 우리회사에 대한 지식도 쌓고 팀원들에게 한턱내는 선심도 베푸시기 바랍니다.

개발팀 이수미 사원



안녕하세요, 개발팀 이수미입니다. 일양가족지 퀴즈 정답자로 선정되어 정말 기쁩니다. 깜짝 서프라이즈 선물을 받은 것 같았고, 덕분에 개발팀 동료들과 즐거운 커피 타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매 분기 발행되는 일양가족지를 통해 회사와 사우분들의 소식을 접하며 업무 속에서 소소한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직무 특성상 여러 부서와 협업할 일이 많은데, 항상 업무에 도움을 주시는 일양가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다양한 부서 소식과 행사를 전해주기 위해 늘 애써주시는 홍보팀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5년 가을호 당첨자 소개

정답을 맞춰서 메일을 보내주세요.
정답을 모두 맞추어 주신 선착순 1팀께
커피 쿠폰을 선물로 드립니다.



1. 유튜브 광고로도 소개된, 어린이가 탈 없이 잘 놀며 자라는 모양을 뜻하는 순 우리말은?
2. 25년 여름호 사보에 소개된 수백만 명의 목숨을 구한 의학의 역사적 순간들과 그 순간을 만든 영웅을 담은 책 제목은?
3. 서울병원 3팀이 생각하는 업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자질 3가지는?
4. 25년 여름호 일양루키가 생각하는 회사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5. 25년 여름호 '일양체험'으로 진행된 클래스는 어떤 체험이었을까요?
6. 제산제와 PPI 성분의 이상적인 조합으로 '놀텍'의 혁신성을 더욱 강화한 복합제는?
7. 그녀들의 수다-한마음 대행진으로 진행된 크루즈 여행은 00크루즈일까요? 00에 들어갈 2글자는?
8. 반하사심탕의 연조엑스 제형으로, 소화기 기능을 조화롭게 하고 속쓰림·소화불량 완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은?
9. 부산에서 진행된 전립선 질환 치료에 대한 지견 공유의 장으로 진행된 심포지움 명칭은?
10. 면역질환 치료제 전문 벤처기업 (주)바렌키마바이오텍과 공동 연구·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한 신약 후보물질은?

일양약품, 놀텍 “5번째 적응증 도전!”

NSAIDs 투여와 관련된 소화성궤양 예방 3상 임상시험 활발히 진행 중

놀텍정 10mg가 NSAIDs(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환자들의 위장 장애를 예방하는 새로운 역할에 도전합니다. 이번 임상에 성공하면 놀텍은 장기적인 위장 보호 역할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위장 보호가 필요한 다양한 환자들에게 더욱 폭넓게 활용될 것입니다.

이번 임상시험은 전국 31개 주요 임상시험병원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임상시험대상자를 모집중에 있습니다.

임상시험 진행 병원 및 지역

서울 지역(9)	중앙대학교병원, 순천향서울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서울성모병원, 한양대학교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보라매병원
경기/인천(13)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분당제생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의정부 을지대학교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현대병원,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김포우리병원, 인하대학교병원, 국제성모병원
대구(2)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대구파티마병원
부산/경남(1)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광주/호남(2)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원광대학교병원
강원(1)	원주세브란스병원
충청(3)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순천향천안병원

개발실 임상2팀은 더 나은 치료 옵션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며 이번 임상시험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02-570-3777~9, 3718.



IL-YANG NEWS in Korea

일양약품 ISO37001 내부심사원 신규 양성·보수교육 실시 | 일양약품 정정보환, 지하철 광고로 더 가까이

일양약품 ISO37001 내부심사원 신규 양성·보수교육 실시



임직원의 청렴 의식 제고와 투명한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ISO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 내부심사원 신규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을 9월 5일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은 온라인 교육과 현장 교육을 병행해 실시되며, 내부심사원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커리큘럼은 ▶ISO37001 적용 범위 및 요구사항 해설 ▶리스크 관리 이해와 리스크 시나리오 ▶내부심사 절차 및 리스크 평가 등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임직원들은 부패방지경영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기업의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전문성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양약품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내부 통제를 통해 신뢰받는 기업으로 나아가겠다는 방침이다.

일양약품 정정보환, 지하철 광고로 더 가까이



일반의약품 정정보환이 서울 지하철 1호선 내부 액자 광고를 통해 시민들과 만나고 있다. 이번 광고는 잠재 고객층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주요 노선에서 진행되어, 정정보환의 특징을 널리 알리고 소비자와의 접점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정정보환은 허준의 『동의보감』 내경편에 수록된 '온신산' 처방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제품으로, 정력 감퇴, 음위증(발기부전), 음부 소양증, 요통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숙지황, 우슬, 육종용, 오미자 등 전통적으로 효능이 알려진 성분을 배합하여 환 형태로 제조되어, 성인 누구나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다. 이번 지하철 광고는 많은 시민들에게 정정보환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이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Good teamwork begins with understanding each other.
- John Quincy Adams -*

좋은 팀워크는 서로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

